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3년 2월 22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2110-4660), 이재석 사무관(4661)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3월 1일부터 시행

- 가격상한제도가 전력시장 가격안정과 전기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듯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2.21일)를 거쳐 최종 승인함

○ 전력거래소는 지난 1월 31일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개최하여 정산가격상한을 도입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월 1일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 **(정산상한가격)** 이번에 도입하는 정산상한가격은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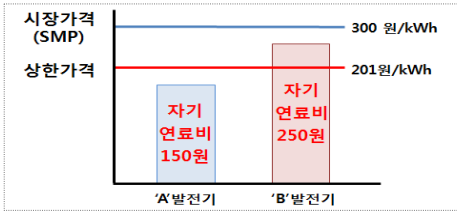
○ **(도입 필요성)**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지고,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전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평균 SMP(원/kWh) : 117.76('10년) → 126.63('11년) → 160.12('12년)

○ **(제도내용)**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하게 됨

※ 정산상한가격 적용 예시



< 시장가격(SMP) 300원일 경우 >

- **'A' 발전기 지급액 : 201원**
  - 상한가격 미도입시 300원 지급
- **'B' 발전기 지급액 : 250원**
  - 실제연료비를 지급받아 손실 없음

※ 발전기별 연료비 순위('13.1월 기준, 원/kWh)

원자력(4원) → 유연탄(35~50원) → 국내탄(65~85원) → LNG복합(130~160원) → LNG·유류기력(190~210원) → 소형열병합(220~260원) → 경유(350원)

○ **(상한가격 수준)** 정산가격상한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하여 매월 결정될 예정임

※ 가격상한 :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의 연료비('13.1월 기준 201원/kWh)

- 용량가격(CP) =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 고정비 수준
- "신인천 가스터빈"의 고정비는 CP, 연료비는 SMP로 모두 보상
- "신인천 가스터빈"이상에서 SMP 결정시 초과이익 발생
- 용량가격 기준 발전기 연료비 수준에서 가격상한 설정이 합리적

○ **(적용대상)** 정산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apacity Price)을 지급하는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이 2만kW초과인 대규모 발전기)에만 적용되며,

* 용량가격(CP) :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적정 설비용량 확보를 위해 중앙급전 발전기의 발전가능용량(입찰량)에 대해 용량가격(7.46원/kW-h) 지급

*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민간사업자 : 16개사(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MPC 대산, 수자원공사, 지역난방 등)

- 신재생·소규모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등의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기간)** 동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문제점을 평가하여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민간석탄발전 정산조정계수)**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에 대해서도 전력을 거래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음('12.5.30일)

○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는 2016년 이후 최초로 가동될 예정이며, 향후 발전자회사와 같이 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일종의 할인률)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으로 정산할 예정임

* 동부발전(당진, 55만kW×2기), STX전력(동해, 59.5만kW×2기) 2016년 가동
* 제6차 전력수급계획 건설의향 조사시 다수 민간사업자가 석탄발전건설 의향 제출

□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고,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가격 안정화와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음

참고1 전력시장 제도

□ **(전력시장)** 한전과 발전사(400여개)는 모두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 **(개설목적)** 2001년 경쟁을 통해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개설

○ **(시장구조)**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수요측 한전 독점)이며, 발전기의 연료비가 가격을 결정(CBP : Cost Based 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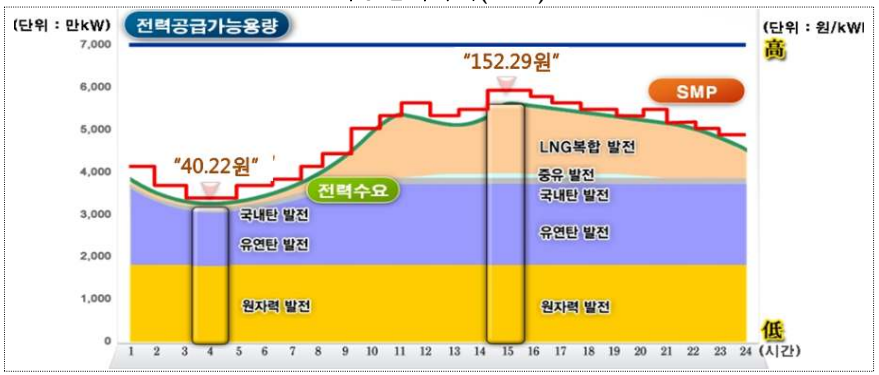
□ **(전력거래가격)** 계통한계가격(SMP)과 용량가격(CP)으로 구성

○ **(SMP)**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는데, 이때 시간대별로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을 정함

○ **(CP)** 전력피크를 대비하여 적정 설비용량 확보를 위해 중앙급전 발전기의 발전가능용량(입찰량)에 대해 용량가격(Capacity Price) 지급

* 용량가격 : 7.46원/kW-h(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 고정비 수준)
* 중앙급전발전기 : 전력거래소의 전기공급 지시를 받는 발전기

< 계통한계가격(SMP) >



※ 전원간 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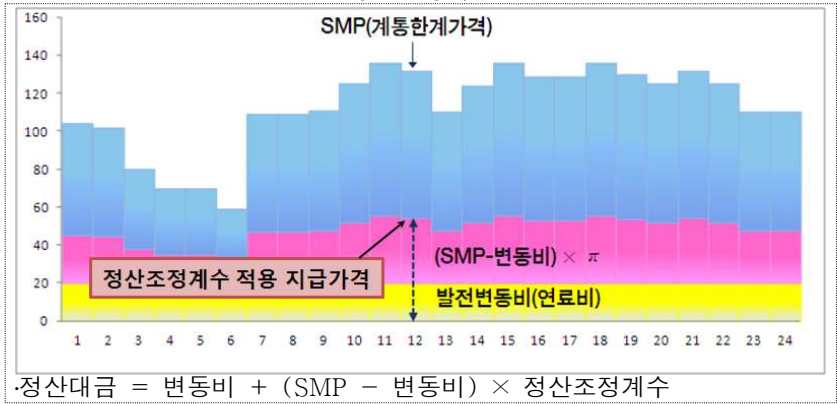
·연료비(원/kWh) : 원자력(4원) < 석탄(35~50원) < LNG복합(130~160원)

·고정비(원/kWh) : 원자력(42원) > 석탄(21원) > LNG복합(17원)

□ **(정산조정계수)** ① 원자력, 석탄 등 기저 발전기의 초과이윤 회수, ②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을 위해 정산조정계수 적용

○ 발전자회사, 일부 민간발전사 등은 전력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일종의 할인률)를 적용하여 일부만 지급

< 정산조정계수 >



·정산대금 = 변동비 + (SMP − 변동비) × 정산조정계수

○ 민간 LNG·유류 발전기는 연료비가 비싸므로 전력시장가격(SMP)으로 그대로 정산

○ 6개 발전자회사(한수원, 화력5사)는 ①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발전기가 많고, ②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여

- 전력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일종의 할인률)를 적용하여 정산

○ 이외에 연료비가 저렴한 민간석탄발전, 민간부생가스발전 등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정산